

의안번호	제 613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6월 10일

#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613
----------	-----

제안연월일: 2024. 6. 10.

제안자: 교육위원장

## □ 주 문

-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중단할 것
- 청주시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승인할 것
-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할 것
- 국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에 인접한 카지노 입점으로 교육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

## □ 제안이유

-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지난 5월 22일 청주시에 기존 판매시설로 승인 받은 건물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하 '카지노'라 한다) 입점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카지노 입점 장소 주변 지역에는 학교 경계선 기준 15m에서 500m 이내에 7개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있고 5천 4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일 등 하교를 하고 있으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음. 또한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건물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마트와 영화관·볼링장 등 주민들이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준주거지역임.

○ 이런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육 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등은 카지노 입점에 따른 도박과 마약 등 각종 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성명과 카지노 입점 반대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한마음으로 표명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를 결의함.

□ 보내는 곳 :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주시장,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지난 5월 22일 청주시에 기존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건물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카지노'라 한다) 입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카지노 입점 장소의 주변 지역에는 7개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한 곳과 초등학교 한 곳은 학교 경계선 기준 불과 15m와 150m, 출입문 기준 51m와 155m 이내의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이고, 나머지 5개 학교도 5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5천4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일 등 하교를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카지노 입점 건물이 보일 정도로 주변 지역 학교들과 근접한 거리에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은 누가 봐도 건강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처사이다.

또한 해당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도 밀집되어 있으며,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건물에는 지역 주민들이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대형 마트와 영화관·볼링장 등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 한복판에 카지노가 노출되어 있게 되면 주민들의 사행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도박과 마약 등 각종 범죄 위험이

커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입점은 아동·청소년의 모방과 사행 심리를 조장하고 도박과 마약 접근성을 높여 우리 사회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역 교육 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등은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성명을 내며 반대의 목소리를 한마음으로 표명하고 있다.

또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29일 청주시민 1만 4천명이 동참한 카지노 입점 반대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며 카지노 입점 불허를 요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현행법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 카지노 입점은 결코 충북 발전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의 외국인 카지노 입점이 기업이윤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권과 학습권, 주거환경권 보장을 무시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여 지역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164만 충북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충북 도민과 청주시민의 카지노 입점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주시는 충북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승인하라

하나,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허가 체계를 강화하여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허가를 불허하라

하나, 국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에 인접한 카지노 입점으로 교육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라.

2024. 6. 10.

충 청 북 도 의 회